

고분자학회와 나

김 성 철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에 “고분자학회와 나”의 제목으로 투고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나는 꼭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되돌아보면 학위를 받은 이후 20년 동안의 나의 생활이 거의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회 활동을 통하여 나 자신의 성장을 얻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가까이 지내는 국내외의 친구들도 대부분 학회와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며 75년 학회 창립의 준비 세미나 참석에서 시작하여 어제 학술지 편집 위원회에 참석하기까지 22년째에 접어드는 학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사실 학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학회 창립 발기 위원회의 최연소 발기인, 초대 폴리머지 편집위원, 1979년 2대 학회 기획이사에서 시작하여, 3대 조직이사, 5대 총무이사, 8대 전무이사, 아직도 평이사로 있어 고분자학회에서 18년간 이사로 재임하는 최장수 이사기록은 아마 깨지기 어려울 것 같다. 산학협동위원장, 기술지 편집위원장, 학술지 편집위원장, 충청지부장 등 학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주신 역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79년 기획이사를 맡고 있을 때 미국 대학에서 개최 하던 continuing education을 본 따 고분자 하계대학을 처음 개최하였으며 당시 대학에서 고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고분자 아카데미의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979년 개최된 제1회 한일 고분자 심포지움에서는 심포지움의 준비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30대의 약관으로 한국측 초청강연자의 한사람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졌다. 그때 참가한 일본측 참석자중 나카지마교수(당시 일본고분자학회장), 다카히코 사무총장, 미야타교수와는 18년에 걸치는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미야타교수, 다카히코씨와는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가까워져서 이 두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본 고분자 과학자들을 알게 되었다.

경도대학의 사에구사교수와와의 만남은 1980년 경도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 고분자 심포지움에서였으며 1985년 경도에서 있었던 미일 고분자 심포지움에 당시 동경공대에 연구연구로 방문중이던 내가 한국 사람으로 미일 고분자 심포지움에 좌장을 맡은 영광도 미야타교수와 가까웠던 덕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심포지움의 연회에서 사에구사교수는 한국에서 IUPAC 고분자 심포지움을 개최하도록 권유하였고 IUPAC 심포지움의 개최가 젊은 고분자 과학자에 미치는 영향을 역설하고 IUPAC 고분자 분과위원장으로 유치를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1986년 고분자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1989년에 드디어 롯데호텔에서 고분자 분야의 첫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으며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다시 많은 외국의 고분자 과학자들을 사귄 기회를 가졌다. 사에구사교수는 그 이후 금년에 개최되는 IUPAC MACRO 심포지움의 한국유치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 사에구사교수께서는 최근에 KRI의 한국회원사 모집에 도움을 드려 그동안의 신세를 좀 갚아 드린 셈이다.

고분자학회의 사무실 구입에도 인연이 많아 1986년 혜천빌딩 601호의 구입 때에는 총무이사의 자격으로 성지건설을 찾아 가 계약을 했으며 값을 깎아 주는 대신에 학회에 특별회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옆방의 602호가 마침 전무이사로 재임중이던 1991년에 매물로 나와 현재의 사무실로 확장되는 행운을 잡았다. 고분자학회의 여러 일을 하는 동안 KIST의 최철림, 김영하박사, 한양대의 임승순교수와 네사람이 같이 일을 할 기회가 많았으며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같이 일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학회 제2대 전무이사를 맡으시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획이사로 발탁해 주셔서 지난 18년간의 즐겁고 보람찬 고분자학회와의 생활을 열어 주신 KIST의 김은영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 없는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